광복절

노 성 철(목사, 경기 안성 매산교회)

본문 : 겔 36:1-28
제목 : 미완(未完)의 광복(光復)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에스겔 37:19)

올해로 우리 겨레는 일제에 의해서 드리워졌던 식민통치의 어두움에서 벗어나 광복 56주년을 맞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겨레가 기념하는 광복은 남과 북 모두에게 여전히 미완의 광복일 뿐입니다. 머지않아 남과 북의 겨레가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그 날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온전한 광복을 맞게될 것입니다.

저는 에스겔 37장의 말씀에서 우리 민족의 통일의 근거와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는 우리 한 겨레에게 통일의 희망을 갖게 하고 이루어 주시는 분은 남과 북의 그 누구, 어떤 특정한 세력이 아니라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분,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예언자들은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 왕국을 멸망에 이르게 한 근본적 원인이, 주변의 강대한 제국 앗시리아나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남북 왕국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공의로운

율법을 거역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마저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변 강대국을 채찍 삼아 당신의 백성을 치셨다는 해석입니다. 공의를 저버린 민족, 자주적인 정체성을 상실한 민족은 다른 민족의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것이 역사의 무서운 진실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뼈아픈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고, 개인과 공동체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세워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성서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역대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들 대부분은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권력과 부귀와 세력을 확장하는 데만 급급하였습니다. 그러했기에 저들은 자신들의 왕국의 내부에 스스로 멸망의 싹을 키워가고 있었던 셈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병폐와 문제의 대부분도 이와 유사합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우리 사회가 모르는 병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는 병을 앓고 있으며, 치료약이 있음에도 쓰지 않아서 병이 점점 더 깊어져간다는데 있습니다. 아는 병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 병은 사회와 민족 전체의 죽음으로 이어지고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장미 빛 미래 역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유대 민족은 거의 70년 간의 포로생활을 지나면서, 초기의 희망이 어느덧 세월과 함께 사라져버리고 대신에 절망과 탄식만 남아 스스로를 마치 죽은 지 오랜 무덤 속의 뼈와 해골들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살아날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죽은 민족이 되고 말았다는 현실인식이 팽배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에스겔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는 골짜기의 오래된 마른 뼈들과 해골들이 다시 살아나는 비전(Vision)을 통해서 희망을 상실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희망을 일깨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민족의 부흥과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기(生氣)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임을 증거 하였습니다. 그가 이러한 깨달음을 전하기 위해 사용한 상징적 방법은 이러합니다. 곧 남쪽 유다의 이름과 북쪽 이스라

엘의 이름이 새겨진 두 막대기를 취하여 이 둘이 자신의 손에서 하나가 되도록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손안에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던 민족을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에스겔은 분단의 고통 가운데 희망을 잃은 민족에게 통일의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민족을 다시 살게 할 길이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봅시다.

20세기의 마지막 기적이라고 불리는 독일의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통일 훨씬 전부터 서독의 교회들은 동독지역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동독 교회를 통해서 직접 혹은 간접으로 도왔습니다. 그리고 통일 직전의 동독교회는 동독 주민의 공론장이 되어서 사회통합을 이끌어내는데 절대적으로 기여했습니다.

남북의 현실은 독일과는 많이 다릅니다. 독일의 경우 양분되었을 때, 구 동독에 의해서 소위 해방전쟁을 내세운 전화(戰禍)를 겪지 않았다는 점이 무혈통일을 이루어 내는데 주요 관건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 화해와 통합을 이루기 위해 우선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북이 서로 지난 50년대 초의 전쟁이 미·소 양 대국의 '대리전'이었다는 핑계를 거두고 전쟁의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받아들임은 남북의 실제적인 군축과 전쟁 재발을 자발적으로 억제하는 상호감시체제 구축의 성과로 반드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 남쪽의 교회들은 먼저 우리 겨레 전체의 공론장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좌와 우의 이념적 대립을 발산하는 토론장이 아닌, 역사적으로 이미 하나였던 겨레의 화해를 위한 공론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죽은 지 오랜 뼈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불필요한 모든 무거운 짐들을 과감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

님의 말씀과 그 생기를 이 사회와 겨레를 향하여 대언(代言)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겨레는 분단의 아픔 이전에 오랫동안 통일을 이루고 살아온 평화의 민족이었음을 스스로와 지구촌 열방(列邦)에 다시 일깨워주어야 합니다. 머잖아 하나님께서 우리 겨레를 이전과 같이 당신의 손안에서 다시 하나됨을 이루어주실 그 날, 우리는 더 이상 미완의 광복이 아니라 온전한 광복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아멘.